

진흥회 활동

C-TV 산업발전 워크샵 개최

- 특소세인하,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등 촉구 -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최근 교육문화회관에서 LG, 삼성, 대우, 아남 등 관련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TV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C-TV 산업은 전자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80년대 이래 오디오, VTR 등과 함께 전자산업의 성장을 선도해 왔으며 향후 21세기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와 통신 및 방송이 융합되어 디지털 방식의 HDTV가 멀티미디어의 총아로 등장하게 되어 가장 유망한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제품

으로 각광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C-TV산업은 기존상품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은 저조하고 수입이 급증하는가 하면 국내 경기조차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환경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채산성까지 크게 악화되어 있고 인터넷 TV, 디지털 TV 등 이른바 멀티미디어의 차세대 상품은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다 높은 특소세 등으로 사업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조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21세기의 국내외 C-TV 산업을 재조명해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단기 과제를 정리하여 민·관의 협력과 업계간 공동의 노력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워크샵에서 제기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C-TV에 대한 특소세 폐지, 폐기물 예치금제 부과 기준 개선, 구조전환 기간중 수입선다변화제 유지, 수입품에 대한 형식승인제 강화, 완제품과 구성부품의 차등관세제 시행, 그리고 디지털 TV 등 차세대 고부가 가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의 조기제정,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충실화, 한국형의 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 정보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향후 이는 주요과제별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

세계 C-TV 수요전망

구 분	'96	'97	'99	'01	년평균 증감율(%)
합 계	115	119	128	137	316
기 존 TV	106	108	103	98	△1.6
WideTV	4	5	13	28	47.5
복 합 TV	5	6	7	8	9.8
신 규 TV	-	-	1	3	73.2

자료 : EIAJ, LG경제원

우리 C-TV 산업의 최근(구조전환기) 생산판매 및 수입동향

구 분	단 위	'96(년간)		'97(상반기)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생 산	억 원	2,959	18.2	1,305	△10.0
수 출	백만불	2,110	16.1	757	△28.5
시판(내수)	억 원	926	2.6	447	△1.5
수 입	천 불	35,532	65.4	28,117	85.8

자료 : 진흥회

가전제품에 긴급세인상, 가전업계, 강력 반대 건의

가전업계는 최근 정부가 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교육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고 30% 까지 인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는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경제희생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고 이를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각계에 긴급 건의키로 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가전제품 등에 간접세를 인

상코자 하는데 대해 총 수출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업계가 이처럼 강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첫째, 문제의 발단인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제품보급 초기단계인 20여년(1997년)전에 소비억제를 위해 부과되었으나 지금은 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생필품이 되어 더 이상 특소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세율도 다른나라나 국내 타산업 품목보다 현저히 높아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수차례 걸쳐 건의해 왔음에도 오히려 세율을 사실상 인상코자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동안 선도해 왔던 가전산업이 최근에는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급증할 뿐 아니라 내수도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폐기물 예치금의 대폭적인 인상('96년 61억원 → '97년 140억원) 등으로 채산성도 극도로 약화되어 이미 오디오 및 소형가전업계와 중소부품 업계가 상당수 도산되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가전산업 생산·수출·시판동향]

(단위 : 생산·수출·시판동향)

구 분	'96	'97(상반기)	증 감 율 (%)	
			'96/'95	'97/'96
생 산	10,989	5,169	2.7	-5.3
수 출	7,836	3,475	-3.0	-14.3
시 판	3,986	1,826	-4.9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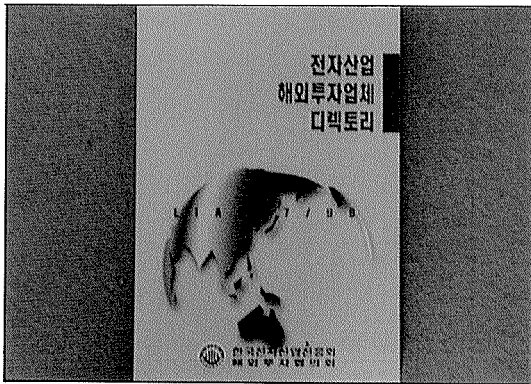
[주요 가전제품 수입동향]

(단위 : 천불, %)

품 목	'96		'97상반기		비 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C-TV	35,532	65.4	28,117	85.8	
(라디오)카세트	139,414	25.3	84,818	30.5	
컴포넌트	79,562	140.4	51,213	38.7	
에어콘	1,342	46.7	445	64.8	

넷째는 세수부진의 요인이 경제침체 때문임에도 간접세를 올려 물가가 인상되면 서민가계의 부담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경기침체를 한층 더 심화시켜 오히려 세수가 더 감소될 우려가 높으며 넷째는 최근 우리경제가 고비용 생산구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국내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이 증가되고 있으며 잇단 기업부도 등으로 자금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범국민적 경제회생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목적세인 교육세를 올려 경제회생에 정면 역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적극 반대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전자산업 해외투자업체 디렉토리』 발간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해외투자협의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국전자산업 해외투자업체 디렉토리를 발간했다.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속에 활발해 지고 있는 우리전자산업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에 따라 해외진출기업들의 경영관련 정보를 격년제로 발행하고 있으며 전자업체들의 세계시장 개척·확보 동향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한편 동책자에 수록된 현지법인들의 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생산법인은 주로 50만불 미만이 92%, 50만불 이상이 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종업원 규모로는 2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생산법인이 71%나 돼 현지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업원 구성도 현지채용인력이 98.5%, 본사 파견의 1.5%의 비중을 보여 거의 모든 법인이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1장은 한국전자업체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으로 모기업과 현지법인을 수록했으며, 제2장 한국전자업체의 대륙별·국가별·해외직접투자 현황에는 아시아·대양주·북미·유럽·아프리카·중동 등 지역별 해외법인을 소개하고 있다.

전자산업 해외투자협의회는 전자산업의 세계화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청취, 효과적인 해외진출전략 모색 등 해외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정관련 대책회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8월7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대우전자·삼성전자 등 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산품 가격표시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을 협의 하였다.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공장도가격 산출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커져 가격에 대한 소비자불신 및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제한 개정관련으로는 소비자측면에서는 가격정보 부재로 인한 제품 선택폭 제한과 제조자 측면에서는 대리점 수익감소로 전자업계 유동기반의 급속한 붕괴가 우려 된다.

이에 업계의 입장으로는 공장도 가격 및 권장소비자가 표시제는 현행유지를 하고 수입가격 표시제 관련개정은 정부(안)을 수용하여 가격표시제 폐지를 통한 open price제 도입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 보

다 유통시장 논리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조사

전자산업 해외투자가 95년말 허가기준 총누계 1,204건에 5,940백만불로 집계됐으며, 현지법인들의 현지화 정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지역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와같은 내용은 진흥회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자산업 해외 투자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전자산업 해외직접투자 실태조사 보고서 통해 분석됐다.

최근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96년말 현재 허가기준으로 총 1,204건에 5,940백만 불로 제조업 전체(5,426건, 11,575백만불)에서 건 수로는 22.1%, 금액으로는 51.3%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794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고, 부문별로는 전자부품 부문이 537건으로 4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산업의 해외투자는 95년 허가기준 11억 900만불, 96년 10억 100만불로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계속된 경기 침체의 여파가 전자산업의 해외투자를 크게 위축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들은 현지 경영에서 오는 애로사항으로 동종기업간 임금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와 원자재 조달 및 물류 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지인의 우수인력 확보애로와 높은 이직률로 인한 현지인의 기능인력 부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국에 대한 전문가 등 세계화 전문인력의 부족문제와 현지투자 국가의 각종 규제 법률 등 투자환경 정보의 부족에도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현지 법인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현지시장의 정보수집 홍보활동 유통경로의 구축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 해야 한다고 응답 했으며 해외투자 기업의 경쟁우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지시장의 수요조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거점의 확보와 현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지법인들은 정부가 우리 전자업체들의 현지법인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요 투자국 정부와의 장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해서 현지법인이 금융, 세제, 노무, 구매선 확보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의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조사 정례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자문제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해외투자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